

UPASIKA PRAISED CONTENTS

- | | |
|----|---|
| 02 | 발행인 칼럼 이기향
청운동 시대, '희망'을 말하다 |
| 04 | 불교와 여성 조민기
술 취한 오백 여인들을 도반으로 이끈 위사카 |
| 06 | 가고 싶은 절, 만나고 싶은 스님 이영희
향운사 지상스님을 찾아서 |
| 09 | 108인 기획 인터뷰 전영숙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 이정호 부원장 |
| 12 | 건강한 먹거리 이야기 최혜경
김자반, 멸치식초무침, 봄동전 |
| 14 | 현장스케치 조정숙
여성광장 개원을 기념하며 |
| 18 | 특별활동보고 남동현
청운동 시대 '희망'을 말하다 |
| 22 | 사무국 소식 |
| 27 | 산하기관 센터 소식 |
| 30 | 회원 동정 |
| 31 | 재정동참 현황 |

우바이예찬

2023년 85호

[발행인] 이기향 [발행일] 2023년 3월 31일

[편집위원장] 형난옥

[편집위원] 김영희, 김원숙, 이영희, 조정숙

[편집디자인] 랄랄라 스튜디오

[발행처] 불교여성개발원·(사)지혜로운여성
(03047)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30길 20 1층

[전화] (02) 722-2101~2

[팩스] (0502) 722-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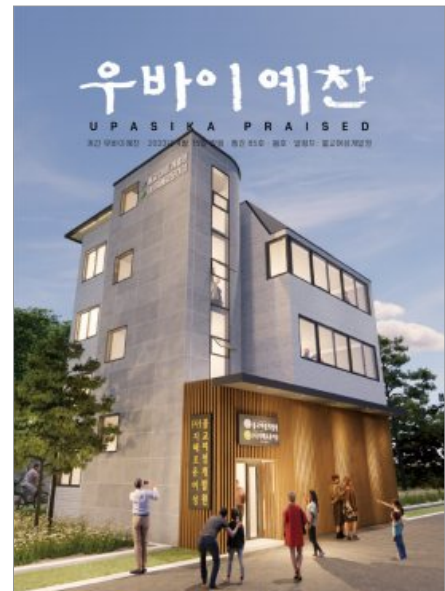
[불교여성개발원 홈페이지] www.bwdi.or.kr

[지혜로운여성 홈페이지] www.wisdom2007.or.kr

[이메일] wisdom2007@daum.net

[은행 계좌] 국민은행 023501-04-193757 불교여성개발원

※우바이는 여성 재가불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표지 설명]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광장 개원(2023.2.25)을 기념하며 교육, 수행, 봉사의 터전이 될 여성광장 건물 전경



청운동 시대, '희망'을 말하다

꽃샘추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서도 어느새 완연한 봄이 왔음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청운동에 새터를 잡은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에도 희망찬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성광장 곳곳에 회원 여러분의 행복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두 차례의 워크숍과 다양한 활동, 사무 공간에서의 마주침을 통해서도 저는 회원님들의 생명력 넘치는 봄의 기운을 감지합니다.

저는 취임 후 40여 일의 시간 동안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개발원에서 열리는 모든 강좌, 법회, 외부활동 등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마음에 일었던 감동은 회원들께서 부처님 법을 따라 가장 아름다운 회향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된 점입니다. 개발원의 격조있는 강좌,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법회, 지혜를 키우고 자비를 나누는 다양한 활동들은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개발원은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세우고 핵심 가치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도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반야 지혜로 무장한 108인회를 비롯한 회원들께서 부처님 정법의 본질을 잘 알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세찬 바람은 오히려 강한 결속력으로 승화되고 우리는 누가 봐도 어여쁜 젊은이로 성장해 이제 막 스물세 살 청년의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대에 수립된 과제들을 디딤돌 삼아 일부는 더 강조하고 몇 가지는 새로 더해 불교여성개발원과 (사)지혜로운여성의 새 얼굴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더욱 밀착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 네 과제에 힘을 쏟겠습니다.

첫째는 생활 수행문화의 확산입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혁신과 소통의 필요성을 주창하였습니다. 혁신과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마음자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명상 리더십을 이끄시는 김홍근 교수님의 “진정한 혁신은 본성을 찾는 일이며 다행스럽게도 자신의 본성을 찾는 일은 전처럼 어렵지 않다. 본성을 볼 수 있다면 자연스레 소통 문제도 해결된다.”는 취지의 말씀은 중책을 맡은 제게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현재 청운동 여성광장은 인포메이션 사인 작업을 끝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층마다 용도에 맞는 컨셉을 정하고 생활 수행문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특히 3층 자비실 공간은 명상, 수행, 기도를 위한 편안하고 고요한 분위기로 단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4층에 기획하고 있는 카페 일공팔_Cafe 108은 회원들의 격의없는 대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단골 머무름의 장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둘째는 소통과 화합으로 연대하는 조직문화를 강화하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맑은 기운이 넘치는 청운동 터에서 영적 리더들의 강력한 이끄는 힘입어 스스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소통과 화합의 문화는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재 능력을 일깨우기 위해 개발원이 마련해드리는 수준 높은 강좌에 많은 동참을 바라는 이유입니다.

셋째는 젊은 불자 유입을 위한 불교여성개발원의 이미지 제고입니다.

우리는 동서양이 만나 영적으로 교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경에서 젊은 불자 유입을 위해 개발원의 탈바꿈은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체되어있는 영 108을 일깨워 자녀를 동반한 가족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불교를 문화 콘텐츠로 이해하고 창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개발원 사옥의 문화적 쓰임새를 확대하면서 개발원이 해외 불교와 접점을 찾아내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범종단, 이웃종교와 교류를 시도하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적극적 대화와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소통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화두로 삼은 네 과제는 제 마음속 깊이 각인될 때만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그리고 신심 투철한 여러분들이 사회적 회향을 위해 모인 우리는 청운동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저의 원력이 우리 회원 모두의 꿈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1080개의 보배 구슬이 서로를 비추는 찬란한 인드라망을 엮어갈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술 취한 오백 여인들을 도반으로 이끈 위사카

부처님 당시 제일가는 우바이는 단연 위사카이다. 그녀의 할아버지 멘다까는 마가다 왕국 5대 재벌 중 한 명이었다고 전해진다. 위사카가 여섯 살이 되던 해, 부처님은 멘다까와 그의 가족을 위해 법을 설하셨는데 그녀는 이때 수다원 과를 성취했다. 멘다까와 그의 가족 심지어 하인조차 수다원 과를 성취했으니 실로 큰 복이었다. 이후 멘다까의 가문은 더욱 번영했고 재산과 명성이 갈수록 불어났다.

위사카의 아버지 다난자야는 빔비사라 왕과 파세나디 왕의 요청으로 사계파로 이주하여 도시의 번영을 이끌었다. 아버지와 함께 사계파에서 살던 위사카는 나이가 차자 스라바스티(사위성)의 거부 미가다의 외아들과 혼인하였다. 사계파를 떠날 수 없었던 다난자야는 스라바스티에게 가장 존경받는 여덟 명의 바라문을 위사카의 후원자로 삼아 주었다. 위사카는 결혼할 때 9천만 냥의 가치를 지닌 목걸이로 치장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어지간한 재벌의 전 재산에 맞먹는 가치를 지녔다고 한다.

한편 당대 제일가는 재벌 가문의 딸을 며느리로 맞은 미가다는 입이 귀에 걸렸다. 그는 하나뿐인 며느리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수행자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위사카를 소개하기로 했다. 그런데 미가다는 외도의 추종자였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설득에도 위사카는 자신의 신심을 지키며 외도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분노한 미가다는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스라바스티에서 위사카는 지혜와 용기로 이혼 소송에 맞섰다. 최후의 법정에서 여덟 명의 바라문 후원자는 위사카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주었다. 지참금을 돌려주지 않고 위사카를 내쫓고자 했던 미가라가 소송에서 패배한 것이다.

이혼 소송에서 승리한 위사카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집으로 초대하였다. 방문을 닫고 부처님 뵈기를 거부하던 미가라는 벽을 넘어 들려오는 부처님의 법문에 감동하였고 마침내 삼보에 귀의했다. 위사카의 이야기는 영웅담에 가까운 미담으로 널리 퍼져나갔고 부처님과 승가의 명성도 높아졌다.

위사카는 신심 깊은 우바이였을 뿐 아니라 스라바스티 사교계 최고의 셀레브로 상류사회 남자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아내였다. 서로 뜻이 맞았던 스라바스티 정재계 등 사회지도층 인사 500명은 위사카에게 자신들의 아내를 보내며 가르침을 청했다. 위사카에게 보내진 오백 여인 중에는 억지로 온 이도 많았고 위사카를 질투하며 싫어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 그 시기에 위사카는 너무 바쁜 나머지 여인들을 돌보거나 가르칠 수가 없었다. 방치된 여인들은 축제 마지막 날, 온갖 스트레스가 폭발한 나머지 술을 잔뜩 마시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엉망으로 만취한 아내를 남편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손찌검을 휘둘렀다.

위사카에게 아무런 가르침과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폭력까지 당한 아내들은 억울함이 사무쳤다. 그러던

어느 날, 오백 명의 여인들은 위사카에게 부처님을 뵙고 싶다고 청했다. 위사카는 기뻐하며 여인들을 데리고 기원정사로 갔으나 여인들의 목적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위사카에게 망신을 주는 것이었다. 위사카가 부처님을 모셔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인들은 감춰온 술병을 꺼내어 벌컥 벌컥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다 마신 술병은 사원에 아무렇게나 던졌으며, 술기운이 올라오자 노래를 부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웃었다. 지체 높은 사모님들이 진상 취급으로 돌변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짙은 남색의 광명을 놓아 사방을 깜깜하게 만들었다. 어둠이 계속되자 여인들은 차츰 정신을 차렸고, 게걸거리던 목소리는 잦아들었다. 강당이 고요해진 순간, 부처님은 여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모습을 드러내셨다. 천 개의 달이 동시에 뜬 것처럼 환한 빛과 함께, 여인들은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에 위축되었고 적나라하게 드러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산란하여 집중하기 힘든 상태라면 처음부터 사원에 오지 않았어야 했다. 그대들이 흐트러진 마음 상태에 있으므로 어리석음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대들이 사원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떠들며 무질서하게 행동하게 한 것이다. 이제 그대들은 그대들 안에 있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다스리기 위해 스스로 힘써 노력하여라.”

이어서 부처님께서 계송을 읊으셨다.

“어찌하여 웃는가?

세상이 불타고 있는데 어찌 즐거울 수 있는가?

세상이 어둠에 가려 있는데

어찌하여 빛을 찾지 않는가?”

그 후 여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순간, 소나기를 맞듯 온몸으로 부처님의 맞춤형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오백 명의 여인들은 일시에 수다원 과를 성취하였다. 위사카는 그렇게 그녀와 함께 신실한 우바이의 길을 걸어갈 오백 명의 도반을 얻었다. 말 그대로 우바이회가 탄생한 것이다. 스라바스티의 우바이들은 서로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힘이 되었을까. 함께 할 도반들이 있기에 결코 외롭거나 슬프거나 길게 억울하지 않았을 것이다. 🙏

향운사 지상스님을 찾아서

강북구 수유동, 4·19 민주묘지 근처 북한산 자락의 주택가에 자리잡은 향운사는 밝은 봄볕 속에서도 고요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검은 벽돌과 흰 줄눈의 건물 외관이 산뜻했으며 현판없이 황금빛 글자만 ‘향운사’로 적어놓아 현대적인 느낌이었다. 사찰 입구 한켠에는 돌로 조성해 놓은 작은 사찰비가 있어 사찰명의 유래와 명조스님과의 인연을 조근조근 말해주고 있었다. 마당을 서성이며 사찰 이곳저곳을 구경하는 취재진을 향해 큰 키와 시원한 음성의 지상스님이 매일 봐왔던 이들을 대하듯 스스럼없이 말을 건네며 안으로 안내했다. 명조스님을 지극 정성으로 간병한 일이 워낙 유명하여 조신하고 여성스러운 스님을 막연히 생각했는데 지상스님의 대범하고 시원시원한 위仪는 멋지게 망상을 깨부수었다. 실재하지 않는 아름다운 전설 같기도 한 향운사의 시작은 ‘승모판 협착증’이라는 심장질환으로 숨쉬는 것도 걷는 것도 모두 힘들었던 명조스님을 위해 수유동에 포교당 세를 얻은 것에서 출발한다. 그후 16년 동안 명조스님의 투병과 지상스님의 지극한 간병 생활이 이어졌고, 그 시간들 속에서 병에만 매몰되지 않고 맑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피워내었다. 부처님의 길을 함께 가는 도반으로 만났지만 남을 위해 온전히 자신의 시간과 마음, 모든 것을 갈아 넣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명조스님이 육신의 짐을 벗어버리고 가시고 나서 남겨진 지상스님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꼬리를 무는 질문을 가득 안고 지상스님을 찾아 봄길을 나섰다.



명조스님과 지상스님은 1987년 공주 동학사승가대학에서 입학 동기로 만났다. 깊은 인연이었는지 함께 맡은 소임이 많았다. 서로 많이 달랐으나 그 다른 점이 한 번도 불화가 되지 않았다. 일부러 애써 맞추겠다는 마음도 없었고 서로 존경하고 그저 닮고 싶은 사람이었다. 함께 공부하고 소임을 살며 승가대학 4년이 훌쩍 지났고 서로 각자의 길로 수행하러 떠났다. 국제 포교에 관심이 많았던 지상 스님은 1999년 호주 멜버른으로 유학을 떠나 어학연수 중이었는데 지인으로부터 우연히 명조스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명조스님을 보기 위해서 또 동국대 대학원 입학 위해 뒤도 안 돌아보고 2001년 한국으로 되돌아왔다. 당장 병이 깊은 명조스님의 치료와 지상스님 학업을 위해 거처가 필요해 수유리에 작은 포교당을 인수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입원과 수술, 그에 따른 간병으로 포교당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웠고 처분하고 말았다. 다시 포교당을 얻었는데 그것이 향운사의 전신이다. 포교당을 운영하며 아픈 몸이지만 명조스님은 주지소임을 살았고 지상스님은 법회를 포함해서 모든 절집 살림을 도맡아 살았다. 명조스님의 심장 기능이 10% 밖에 작동하지 않아 모든 곳에 혈액순환이 안되어 명조스님의 팔, 다리를 일과처

럼 주무르고 공양 후에는 배를 문지르고 매 끼



니 환자식을 챙기면서 정성을 다해 간병했다. 앞날을 기약하지 못하는 수술을 몇 차례 하며 여명이 6개월 정도라는 의사의 소견이 보기 좋게 어긋났다. 두 스님은 이렇게 열심히 삶을 피워내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갔다. 지상스님은 명조스님을 내 몸같이 아니 내 몸보다 더 보살피며 나와 남이 따로 없는 보살의 경지를 매일 살다보니 몰록 깨달아지는 것도 많았다. 명조스님을 위한 맛사지가 곧 수행이었고 좌선이었다. 일념으로 몰입하는 순간순간이 곧 도임을 체득하였다. 수행자 대 수행자로 함께 가는 길이 행복했고 힘들다는 마음이 전혀 없이 도리어 이런 인연을 만나 내가 복이 많구나 생각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지극히 할 뿐, 계산도 없었고 계산할 이유도 없었다.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건 탐욕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으니 불만족스럽고 채우려고 애쓰니 힘들고 원망이 들끓어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짜 웃음이 사라진 겁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그 자체가, 심장이 뛰는 1분 1초가, 삶의 매 순간이 기적이고 경이로움이라는 사실을 너무 몰라요.”

하루 하루를 숨 쉬고 살아가는 고마움과 부처님 은혜를 갚고자 두 스님은 2009년 6월 ‘남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매월 넷째 토요일 오전 정기기도 법회에서 1시간 동안 ‘남을 위해 기도’를 드린다. 기도 모임의 이름을 듣자 마음에서 파문이 일었다. 진정으로 남을 위해 기도를 올려본 적이 있던가? 이후 ‘자비공덕회’로 개칭하고 네팔 오지 마을 후원사업과 장학사업을 10년 넘게 이어오다 2021년에는 서울시로부터 공익법인, (사)헬핑로드(Helping Road)로 명칭 허가를 받아 부처님의 자비와 동사섭을 14년째 실천해오고 있다. 2010년 네팔 칸첸중가 오지의 빈곤아동 12명을 선발하여 학자금을 후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4년 동안 1,300여명의 어린이를 후원하였고 11개 학교에 컴퓨터 185대를 기증하여 오지마을 학생들의 디지털 양극화 현상 해소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통학 수단인 자전거를 기증하고 학교 교실에 화이트보드를 달아주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교육사업 이외에도 코로나 기간 중에는 총 600가구에 긴급구호식량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되어 새 세상이 열린 것 같다고 그리도 행복해 하던 명조스님과 지상스님.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에 이르듯 두 스님이 시작한 작은 기도모임이 이제는 사단법인으로 커졌고 12명의 최초 장학금 수혜자가 이제는 120여 명으로 늘어났다. 네팔에 속가 자식이 120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명조스님이 2016년 8월 24일 입적하자 멀리 네팔 땅의 어린이들과 그 가족, 관계자 모두는 큰 슬픔에 빠졌고 깊은 애도의 조문을 한국에 보내왔다. 도움을 받았던 학교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학교 마당에 모여 애도의 묵념을 하며 스님을 추모했다. 지상스님



은 명조스님의 뜻을 기려 नेपाल에서 계속 장학사업과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이어가고 한다.

이제 향운사는 지상스님이 주지를 맡아 도반의 뜻을 기리며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다. 2017년 사찰 불사를 시작할 때 넉넉하지 않은 절 살림이었지만 앞으로 오랫동안 법등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고 신도들에게 여법한 기도 도량을 만들어 주는 것이 소원이었던 명조스님과 약속이기도 했다. 일말의 삿됨도 없이 올곧게 살아가는 스님들을 보며 신도들도 십시일반 마음을 보탬고 지상스님 본인은 직접 팔을 걷고 나서서 건축설계부터 시공까지 꼼꼼히 챙기며 빠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건설소장의 감탄을 자아냈다.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편안하게 찾을 수 있고 동시대와 함께 가는 도량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찰 3개 층을 여러 가지 면에서 혁신적으로 설계했고 세심하게 구성했다. 건물 내의 장식과 집기류 역시 사용할 사람들을 미리 생각해 디자인하고 배치했다. 특히 대웅전의 입식 의자와 디자인은 노년층 불자를

위해 허리 각도까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해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했다. 입식 법당은 과감한 듯 했지만 신도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동시에 전통적 좌식 예불을 선호하는 불자들을 배려하여 법당 한편에 좌복도 배치했다. 공양간도 입식으로 바꾸면서 신도들의 휴게공간으로도 활용될수록 다목적으로 꾸몄다. “이곳 향운사에서 부처님 법이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개축 불사를 통해 불법(佛法)이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불법이 전해질 수 있는 도량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2019년 1월 19일 향운사 불사가 완성되었다. 법회 역시 시대와 신도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 음력 초하루, 보름 법회 대신 매 주 일요일 법회를 한글로만 진행하고 있으며 전법을 위해 현대인들이 관심이 많은 명상을 적극 도입해 ‘마음 평온과 몸건강을 위한 치유명상’이라는 명상프로그램을 지상스님이 직접 지도하고 있다. 명조스님의 발원과 지상스님의 헌신으로 여법한 법당이 잘 마련되어 있으니 이제 우리는 향기로운 구름이 가득한 향운사를 떠들썩한 법석 자리로 즐거운 수행처로 삼아 가득 채울 일만 남았다. 🍵

참고자료

2016년 9월 14일자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

BBS NEWS(<https://news.bbsi.co.kr>)

불교신문 che11@ibulgyo.com

글로벌뉴스통신GNA(<http://www.globalnewsagency.kr>)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정호 부원장

이번 호에는 2차 108인이자 예술심리치료 전문가 이정호 선생님을 소개한다. 하늘 푸르고 햇살 따뜻한 봄날 서울 숲 꽃나무 아래에서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의 영원한 사랑 손녀 이정호

제 고향은 충남 예산군 복당리로 수덕사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이제 조부모님도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고향집은 아직 남아 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1900년대 초 10살 꼬마신랑과 11살 꼬마신부로 백년가약을 맺으셨어요. 두 분 슬하에 자식 이라고는 오직 할머니 나이 스물셋에 낳은 제 아버지 한 분뿐이셨지요. 그 후 23년 만에 태어난 손녀딸이 바로 저였어요. 비록 제 뒤로 동생들이 있지만 할머니께 저는 정말 특별한 손주였어요. 할머니의 영원한 사랑이었다고 할까요?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 난산이어서 제가 거의 죽을 뻔했대요. 운 좋게 살아났지만 아기가 젖도 잘 빨지 못하자 갓난 아기를 살리려고 온 집안 할머니들이 나섰대요. 증조할머니는 나이가 들어 쪼글쪼글해진 당신 젖꼭지에 아기 입을 붙여놓고 입이 조금이라도 오물거린다 싶으면 얼른 엄마 젖꼭지에다 대주곤 했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온 집안 사랑을 받느라 아기 때 저는 발이 땅에 닿을 새가 없었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지방에서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은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저를 항상 그리워하셨지요.

저는 방학이 되면 바로 다음 날 할머니 댁에 가서 개학 전날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제가 가면 “무얼 먹고 싶으냐?”고 물어보시고 다 해 주셨어요.

마당에서 빨갭게 익은 토마토를 따고, 닭장에서 따뜻한 계란을 꺼내고,

할머니랑 장단 맞춰 다듬이질도 하고, 숯불 다리미로 다림질할 때 한쪽에 서 붙잡고 있기도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칭찬만 하셨지 나쁜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분들이셨죠. 남녀차별이 심한 시절이었

지만 두 분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제가 나중

에 예술심리치료를 공부하고 나서 돌아켜보니 그때 서울에서 학교 다니면

서 힘들었던 것을 방학 한 달 동안 집중치료를 받고 회복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불교의 매력은 거짓이 없다는 것

자라면서 저는 종교와 인연이 크게 없었어요. 친구 따라 교회에 가보았지만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라는 데 이걸 저에게 좀 맞지 않다 싶었어요. 그런데 불교는 달랐어요. 부처님은 오히려 남이 다 그렇다고 말해도 네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처님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쏙 들었죠.

저는 대학 졸업 후 독일로 유학 가서 남편 만나 결혼하고 아이 둘 낳아 키우다가 30대 후반에 귀국했어요. 이 무렵 시어머니를 따라 조계사에 나가기 시작했구요. 당시 남편이 마산에 있는 회사로 가게 되어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친정아버지는 남자 혼자 지방에 보내면 안 된다고 따라가라고 하시는데 간신히 서울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말투도 다른 지방에 가는 것이 망설여졌지요.

어느 날 조계사 법회에 갔는데, 아마 그날 법문하신 스님이 무진장스님이셨던 것 같아요. 스님은 마치 제 마음을 아시는 듯,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무슨 걱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절에 몇십 년씩 다닌 사람도 불교가 무엇이라고 하면 대답을 못 한다. 불교는 한 마디로 악한 짓 안 하고 착한 일 하고 마음을 맑게 해서 바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살면 다 잘 살 수 있는데 욕심 때문에 바로 보지 못하니 제대로 못사는 것이다.” 하셨어요. 스님의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쏙 들어왔지요. 그 후 남편만 마산으로 가고 우리는 주말부부가 되었지만 사람이 가까이 있다고 믿을 수 있고 멀리 있다고 못 믿는 건 아니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불교의 매력은 거짓이 없다는 것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걸 그렇다고 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나쁜 짓을 하고도 부처님만 믿으면 다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1988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49재를 지내면서 매주 『금강경』 독송을 해드렸어요. 시아버님이 『금강경』을 좋아하셨다며 시어머님이 특별히 부탁하셨거든요. 그때 읽은 건 한문 독음만 달려있어 무슨 뜻일까 궁금했어요. 49재 지나고 『세계사상전집』에서 번역문을 찾아 읽었어요. 처음 읽었을 때 다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엄청난 가르침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 후 살면서 『금강경』 구절들을 떠올리고 무주상보시의 공덕과 이름의 허구성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놓고 그 이름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고정된 이미지에 예속되어 살고 있잖아요!



승산 스님의 물음에 내 안에서 나온 대답

큰아이가 고3이던 해에 조계사에서 백고좌법회가 열렸어요. 전국의 큰스님들이 오셔서 한 분이 한 경전씩 맡아 며칠씩 법문을 해서 100일을 이어가는 법회였어요. 100일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다니다 보니 마음이 열리고 환희심이 났어요.

마지막 순서로 승산 스님이 나오셨어요. 스님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를 깨닫고 나서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를 깨닫는 ‘출출세간’의 경지가 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산은 높고 물은 흘러간다.”는 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나왔는지 아는가?” 하셨어요. 그러자 갑자기 제 안에서 “어머니요” 하는 대답이 나왔어요.

그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동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친구의 권유로 40이 넘는 나이에 아동학과 대학원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미술치료와 놀이치료 분야에 눈을 뜨게 되었지요.



지천명의 나이에 예술심리상담사가 되어

소통이 어려운 아이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아이마다 심리적으로 혼란을 느낀 어떤 시점이 있어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게

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끔 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하지만 자기를 믿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대상을 만나면 다시 자라나올 수 있지요. 사람은 방해만 받지 않으면 누구나 부처님이에요.

예술치료는 그림을 그리거나 자유로운 동작을 하거나 놀이를 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일이므로 아이도 길러보고 적당히 나이를 먹고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한 사람이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대략 100명 이상의 아동, 청소년, 성인들을 만났어요. 아이들은 자연의 존재라서 방해만 하지 않으면 저절로 회복이 돼요. 사람 내면에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쏟아내고 싶어져요. 마치 먹구름이 무거워지면 빗방울로 쏟아지듯이 쌓였던 감정을 쏟아낼 때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맑아져요. 상담시간 내내 딴 생각 안 하고 내담자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도 수행이라고 할 수 있지요.

불교여성개발원과 함께하는 동행의 기쁨

저는 불교여성개발원 도반들이 참 좋아요.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저랑 잘 통하고 진실한 마음을 느껴요. 개발원 도반들을 만나고 나면 ‘아, 불교계에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구나.’ 싶어 가슴이 따뜻해져요.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새로운 희망으로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고요. 개발원에 상담실을 만들었으니 상담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도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두운 사건들이 마음을 어지럽힐수록 불교여성개발원에 모인 부처님 제자들은 앞으로 한국불교를 살리는 주체가 되겠다는 희망을 넘어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일을 할 때나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짚어보고 맞는 것이면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

김자반, 멸치식초무침, 봄동전

늦은 밤 배달음식이 도착하는 광경이 낯설지 않습니다. 편리하고 쉽게 원하는 먹거리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지만 부작용이 수반되는 현실을 간과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식문화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천지에 널려있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여 몸에 좋게 조리하여 드시기를 권하고자 함이 귀한 지면을 마련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호에는 이른 봄부터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봄동과 먹다 남은 마른 김과 멸치를 이용한 밑반찬을 함께 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사시사철 얼마나 먹거리가 다양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밀키트도 수도 없이 많습니니다, 그런데도 만들어 먹는건 주저합니다. 그러나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해 먹어야 자식들도 따라 해 먹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맨먼저 김자반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 김이나 냉동실에서 꺼내서 하면 됩니다. 김밥 김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곱창김을 쓰겠습니다. 곱창김은 파래와 섞여 맛있는 김입니다. 20장을 준비하여 가위로 자르거나 칼로 썰어 놓습니다.

설탕과 멸치액젓(국간장과 진간장을 섞어 쓰도 됨)을 용기에 개어 놓습니다. 멸치액젓이 감칠맛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기농 황설탕 35g, 현미유를 간장 양과 동일하게 준비하여 넣어 줍니다. 꿀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섞은 양념을 김에다 묻혀 간을 하는 겁니다. 가능

하면 기름은 좋은 기름을 써야 하는데, 현미유는 참 좋은 기름입니다. 현미 씨앗으로 만드는 건데 계란 후라이할 때도 쓰면 좋습니다. 간이 다 되면 일회용 장갑을 끼고 약한 불에서 뒤적뒤적 볶으면 됩니다. 양념과 김을 비비면 됩니다. 다 볶이면 통깨를 손으로 비벼 깨소금을 만들어 솔솔 뿌려 줍니다. 그래야 김에 깨가 잘 묻습니다,



다음은 봄동전입니다.

부침가루에 조선간장을 한 숟갈 넣으면 깊은 맛이 납니다. 반죽은 되지도 너무 묽지도 않도록 되직하게 합니다.

이 요리는 정말 쉽습니다. 경상도에서 배추전 하듯이 하면 됩니다.

배추는 두터워서 줄기를 칼로 두들겨서 간을 해야 하는데 봄동은 얇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요리는 볶은멸치 무침입니다. 멸치를 기름에 볶으면 신선한 맛이 없어집니다. 옛날에는 불이 귀하니 연탄불에 멸치를 넣어 세우면 뽀뽀해집니다. 이번에는 후라이팬에 볶습니다. 중멸치를 후라이팬에 넣고 중간 불로 볶으면 비린내가 날아가고 눅눅하던 멸치가 바삭해지며 뽀뽀해집니다. 짠 멸치를 쓰더라도 노릇해지면 불을 끄고 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냄새도 염분도 다 날아갑니다. 멸치를 그냥 볶은 건 반찬이 안 되지만 이걸 반찬이 됩니다.

다, 음식은 엄마를 보고 배웁니다. 제가 영양학 전공했지만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줍니다. 이런 요리를 할 때는 꼭 엄마가 소환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정반찬 요리 가르치는 곳도 있다 합니다.

양념을 볼에다 해보겠습니다. 조선간장 1.5, 진간장 1.3티스푼에 쪽파 5뿌리와 대파 0.5뿌리를 잘게 다져 넣습니다. 청량고추 1개를 씨 있는 채로 잘게 썰어 넣습니다. 여기에 식초를 넣습니다. 마늘 5쪽, 고춧가루 약간 들어갑니다. 설탕을 식성에 따라 넣습니다. 그러면 새콤달콤한 맛입니다. 깨소금을 뿌려줍니다. 한소큼 식혀 담아둡니다. 멸치식초무침은 해서 놔둬도 금방 눅눅해지지 않습니다. 식초를 많이 먹으면 행복한 기분을 잘 느낀다고 합니다. 🍷



* 건강밥상지킴센터 최혜경센터장이 3월 25일 청운동 여성광장 4층 108카페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여성광장 개원을 기념하며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22년, (사)지혜로운여성 창립 15년 만에 불교여성광장을 개원하여 실무 책임자로 현장스케치를 정리하는 감회가 무척이나 새롭다.

조계사 불교대학 4층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서 바자나 여타 행사가 끝나면 그 많은 짐을 양팔에 들고 4층까지 걸어 오를 때 실무자들이 한탄하며 다음에 사무실 얻으면 꼭 1층에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통했는지 신기하게도 바로 옆 건물 1층을 얻어 10년 4개월을 잘 지냈다.

2022년 7월 말에 사무실 퇴거 요청을 받고 8월 말에 계약하고, 9월 말에 입재식하고 12월 말에 잔금을 다 치르고 등기 신청하고, 2023년 2월 말에 개원식을 가진 7개월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김선옥 전 원장과 실행위원들(이정호, 양경윤, 원유자, 정대련, 최혜경, 이영미, 형난옥, 남동현, 박종덕(인테리어), 안영(공인중개사) 이상 11명의 실행위원들은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여성광장의 개원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안영 10차 108인의 직업적 역량에서 나온 절묘한 승부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의미가 커지고 있음을 밝힌다.

사람이 모여하는 일에 크고 작은 뒷얘기는 이미 익숙하지만, 여성광장 건립에도 여러 에피소드를 뒤로하고 부처님이 계셔 길을 안내하듯 청운동으로 이사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집단지성에서 나오는 해안에 가까운 의사결정이었다.

개발원이 독립할 즈음 20여 년 동안 우리의 언덕이었던 종단으로부터의 독립이 갖는 시원 섭섭함을 넘어서는 옛날에 성년이 되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서울로 상경하는 그 큰 두려움에 살포시 숨어있는 기대감을 떠올리기에 충분하였다. 운영위원들도 나와 비슷한 감정일 즈음 박원자 전 명상리더십 센터장이 우리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 가르침



따라 일상에서의 기도의 힘을 키워야 한다. 고 제언하여 선림사를 찾게 되었다.

그 이후 365일 동안 하루도 어김없이 새벽 5시면 기도를 알리는 김선옥 고문의 말뚝신심 덕분에 독립은 물론 여성광장 개원까지 개발원의 성년식을 잘 치렀다는 생각이 든다.



9월 28일 입재식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이제 “때가 되었다”는 여론에 이견이 없이 모두 소중한 재원을 약정하고 매주에 걸쳐 홈페이지에 올리고 단체 특방에 공지하였다.

특히 10차 108인 지리산 선림사 보우 법사님은 입재식 안내를 받자마자 첫 번째로 천만 원을 후원하여 시작의 서광에 큰 안심을 얻었다.

12월 28일 잔금 날짜를 세며 며칠 전부터 금액이 맞는지 몇 번이나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이를 전에 취득세도 준비해야 한다는 법무사의 말에 따라 2억 원 가량의 돈을 더 준비해야 하는 날벼락같은 소식에 김선옥, 김외숙 두 분 고문과 최혜경이사와 지인들 그리고 정대련 부원장께 급히 차용하여 무사히 넘기고 노란 표지의 등기권리증을 받은 순간이 새롭다.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하여 완성되기까지 이기향 현 원장님의 차원이 다른 안목 덕분에 27년 된 낡은 건물을 새로 지었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탈바꿈시켜 아쉬움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한다.

2월 20일 이사 날짜가 결정되자마자 108인회와 다문화 봉사단에서는 차수별로 봉사자를 정하고 다문화 법회 이후 참석한 봉사자들과 가족들은 새 건물의 위치를 익히기 위해 수송동에서 청운동까지 걸어서 지하에서부터 옥상까지 공간을 탐색하였다.

회원들은 단합하여 불교여성개발원 22년 역사의 이삿짐 정리부터 청운동 여성광장까지 전문 청소업체를 부르지 않고 스스로 정리와 청소, 단장을 척척 해냈다.

이사 후 5일 만인 25일 드디어 여성광장 개원식을 공지하고 설렘과 떨림으로 행사준비를 하였다.

25일에는 정기총회, 현판식 및 개원식 그리고 원장, 이사장 이·취임까지 큰 일을 하루에 다 치르는 일정이었다. 개원식 하루전날 운영위원회에서 금강경독송으로 청운동을 문을 열자고 하여 급히 발원문을 쓰고, 일찍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시라고 공지하여 우리 공간에서 부처님 최고 경전인 금강경을 읽는 우리





에 대한 무한한 감사로 코끝이 시큰하였다.

이어서 정기총회에 신임원장, 이사장 승인, 사업보고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 정관변경, 법인 주소 이전, 기본재산 취득 등을 의결하고 잔칫집답게 떡국으로 다 함께 점심공양 하였다. 개발원 크고 작은 일에 구정물에 손 담그며 건강밥상지킴센터와 수익사업단장으로 열일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시는 최혜경 센터장이 점심공양 전체를 후원하였다.

박원자 5차 108인의 사회로 혜충스님, 정덕스님, 일법스님, 선재스님을 포함한 유필화교수, 김홍근 교수를 비롯한 내외귀빈들이 도착과 함께 1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행사장인 2층 지혜실로 올라와 여성광장 개원을 위해 특별한 수고와 전문성을 발휘해 주신 안영, 박종덕, 인테리어 대표 정관천 3분께 감사장과 부상으로 순금 1돈을 증정하였다.

이어 혜충스님께 개원법회 법문을 청하였다. 혜충스님은 포교원장 재직시절에도 불교여성개발원을 아껴 주었지만 개발원이 말도 안 되는 음해를 받는 힘든 시간을 겪을 때에도 더더욱 잘하라고 격려해 주신 덕분이다.

혜충스님 법문이 끝난 후 참석한 대중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청운동 시대가 순탄하도록 팔시루떡 컷팅을 하며 개원식을 충분히 축하해 주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그 어느 분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내빈이 계신다. 개발원 창립부터 독립에 이르기까지 개발원을 이끌어오신 전임원장님들이시다.

한 분 한 분의 임기 때마다 현안을 잘 대처하며 역사를 이어온 덕분에 22년이 존재하고 여성광장이 빛을 발한다. 자랑스러운 불교여성개발원 전임원장님들께서 오래도록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어 원장, 이사장 이·취임을 가졌다. 11대 김선옥 원장은 불교여성개발원 역사에서 독립과 여성광장 개원이라는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표현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텐데 내색하지 않으며 함께 만들어 가는 역사의 힘을 믿는 내공의 리더십에 개발원이 원장 복이 있는 단체다. 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감사장과 금 한 돈으로는 다 표현 못한 회원들의 감



사한 마음을 꼭 기록하고 싶다.

제12대 이기향 신임 원장은 2011년 불교 여성광장 건립을 위한 “불교르네상스의 꿈_춤추는 단청” 패션쇼를 기획하여 여성 광장의 첫 불씨를 심어준 공이 있는데 여성 광장 개원식에 원장 임명장을 받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를 인연법이 참 묘하다. 이기향 신임원장과 함께 청운동 시대를 열어갈 부원장단, 센터장에게 위촉장과 임명장을 수여하며 소통과 혁신으로 앞으로 청운동 시대의 희망을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여성광장을 개원하며 잊을 수 없는 두 분의 얼굴이 떠오른다. 한분은 향산 윤용숙 실상화 1차 108인이다. 2011년 불교여성광장건립에 1억원을 후원한 다음 한참 후까지 편찮으셔서 잘 뵈지 못했는데 2016년 10월 돌아가시기 전



달까지 불교여성광장건립 하나은행 통장에 5백만 원을 보내주셨다. 그것도 49제일 사회자께서 고인 삶을 정리하면서 불교계 재가운동 시조에 가까운 분께 천만 원을 후원했다고 하여 개발원 통장 중 잘 쓰지 않는 하나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비로소 알았다. 그 병환 중에도 개발원 여성광장건립을 위해 소리 소문 없이 후원하신 걸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또 한분은 반야사 비구니 원옥스님이시다. 문

화제 이후 2012년에 원옥스님이 직접 개발원 찾아오셔서 여성불자들이 활동할 공간마련 한다고 하니 나도 넉넉지 않은 살림으로 돈이 없지만 1천만 원 약정한다면서 월 1백만 원씩 후원하셨는데 몇 년 전에 원적에 드셨다.

여성광장 개원을 기념하여 특별히 고운 마음을 내신 두 분을 비롯하여 1,010명의 사부대중님께 이 공덕으로 세세 생생 가정과 개인에게 불은이 함께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앞으로도 불교여성개발원과 (사)지혜로운 여성은 여성광장을 통해 한국 여성 불자들의 교육, 수행, 봉사를 통해 세계인과 더불어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할 수 있는 터전이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청운동시대 ‘희망’을 말하다

불교여성개발원 운영위원회에서 청운동 103번지의 대지 53평 건물(지하1층, 지상3층과 옥탑) 매입을 결정한 것은 작년 8월 11일이었다. 그리고 9월 28일 불교여성광장 건립을 위한 3차 모연을 위한 입재식을 시작하여 연말인 12월 31일까지 224명, 723,153,857원이라는 후원 내지 약정을 이루어내었다. 그와 함께 건물 등기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2월 21일 건물 이전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다. 놀랍게도 7개월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모두 이루어진 일이었다. 희유하고 희유하다고 할밖에. 그 와중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돕기 성금 모금까지 하여 나라 밖의 고통도 함께 나누고, 해충 스님과 인도 성지순례도 다녀왔다. 순례 중 인도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존자까지 친견하고 왔으니 더욱 놀랍지 않은가!

새로운 공간인 청운동에서의 시작을 신임 이기향 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염려와 기대가 섞여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무엇보다 첫 방향을 잘 잡기 위해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원 워크숍과 108인회 전체가 모이는 워크숍을 두 번 개최하였다.

이제 두 차례의 워크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불교여성개발원과 ㈜지혜로운 여성의 임원 워크숍이 3월 18일(토)에 새로운 보금자리인 청운동 103에서, 여성불자 108인회 전체 회원 워크숍은 한 주일 후 3월 25일(토)에 법륜사에서 있었다. 주제는 모두 “청운동 시대 희망을 말하다”였다. 청운동으로 우리의 터전인 광장을 옮겨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가는 길이 명확하고 탄탄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임원 워크숍 시작 전 10시부터 3층 자비실에서 불교여성광장 개원을 기념하는 금강경 독송 기도를 시작하였다. 원장님부터 시작하여 빈자리가 없을 만큼 가득 찬 개원 기도는 최혜경 이사님이 집전하였다. “위 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 광명으로 자재하옵신 대자대비 본사 세존이시여 오늘 저희들 1,012명의 불제자들이 광장 건립 염원을 성취하여 찬란히 빛나는 등불 밝히고 환희용약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가르침을 우리 함께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불교여성개발원을 설립하고 재가여성불자들의 역사를 이어온 22년은 서로를 바라보며 보살의 길을 가는 자랑스런 부처님과 제자 우바이들의 기쁨과 환희, 희망과 정진, 감사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라옵건데, 불교여성개발원으로 인연되어 하나된 저희들은 불교여성개발원 광장 건립을 계기로 금강경에서 설하신 실천불교의 가르침을 받들어 ~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는 호법보살로 거듭나겠습니다.~~개발원의 발전이 무궁하고 일체중생과 역사와 국토를 빛내고 마침내 부처님의 크신 은덕을 갚아지이다.” 개발원이 걸어온 길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이기도 하였다.

이기향 원장의 「청운동 시대 ‘희망’을 말하다」는 청운동 시대에 걸맞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2022년까지의 비전과 사명, 실행과제가 개발원의 위상에 맞게 구체적으로 잘 정립되고 실천해 왔다고 언급하며 2023년의 비전의 핵심개념은 계승하되, 새로운 시대에 맞게 다섯 비전을 제시하였다. 1. 깨달음을 통한 수행 문화의 확산, 2. 소통과 화합으로 연대하는 조직 문화 강화, 3. 젊은 불자 유입의 기회 확대와 그것을 위한 불교 이미지 제고, 4. 문화 콘텐츠로 접근하는 불교, 5. 종단을 초월하여 타종단과 교류 강화 등이다. 청운동 시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혁신과 소통의 핵심개념을 변화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명상 리더십 강좌 때의 김홍근 교수의 “진정한 혁신은 자신의 본성을 찾는 일이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새로 출발하는 불교여성개발원의 역량이 수행에 집중될 때 개발원의 미래가 밝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혁신’으로 가는 지름길은 수행이며, 수행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면 ‘소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과제로는 미래 불교 인재 양성, 국제 여성 108인 선정, 돌봄 관심 대상 확대를 위한 인적 구성의 정비를 꼽았다. 첫째 미래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 108(2세대) 활동을 재개해야 하는데, 이를 이루기 위하여 가족 템플스테이를 추진한다면 자연스럽게 어린이 108(3세대)을 키울 수 있게 된다. 또한 108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젊은이들을 확보하기 위해 리더십 강좌를 부활하고 지혜장학회도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장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세계와 함께하는 불교, 즉 국제 불교를 지향하기 위해 국제 여성108인 선정을 추진하되, 제11차 108인 선정 때에는 국내 거주외국인도 포함하고, 올해 제18차 샤카디타 국제대회 때에는 행사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행사 일정 중에 개발원 방문과 불교 활동가 초청 강연, 주한 외국 여성 대사와 유대도 긴밀하게 이루어야 한다.

셋째, 돌봄 관심 대상 확대를 위한 인적 구성으로써 돌봄 관심의 대상을 가까이하는 몸이 불편한 108 선배로부터 탈북 여성, 원폭 피해자, 학교 지어주기나 위탁기관 헬핑 로드 등 해외지원에도 관심을 갖고 실천하도록 한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108인회의 조직의 정비와 홍보, 부처님 모시기, 건물관리와 4차 모연의 추진이다. 108인회가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로 차수장 기피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108인의 자긍심 함양과 신심 투철한 도반의 강화를 통하여 해결의 단초를 열어보자고 제안도 하였다.

점심 공양 후 원장의 주제 특강에 이은 모듈별 주제토론과 발표가 열띤데 이루어졌다. 참석한 이들은 근래에 보기 드문 열띤 토론과 발표였다고 자평이 이어졌다. 이 내용은 108인회 전체 워크숍 때의 것과 함께 모아 보기로 한다.

108인회 전체 워크숍은 연이은 행사로 무리한 점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임원 워크숍에 이어 곧바로 해야만 실효성이 있다는 취지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청운동 광장에서 할 수 없는 아쉬움을 안은 채, 한국대학교 법륜사(울곡로 1길 31) 1층에서 진행되었다. 10:30에 개최하여 원장의 환영 인사말씀 「우리 함께 가요~~」와 108인회 활동 소개 영상, 108인회 회장의 인사말 「청운동 시대, 여성불자 108인회는 어디로 가야 하나?」, 차수장 소개 시간에는 10개 차수 10분 모두 자신의 차수 안내와 이끄는 방향, 애로와 협조 등 인사를 하였다. 이어 김홍근 교수의 특강 「청운동시대 ‘희망’을 말하다」로 오전 프로그램을 마쳤다. 점심 공양 이후 김양희 회장과 행복의 노래교실에 이어서 차수별 토론과 발표에 이어 시상, 히그 타임과 ‘우리는 하나: 무조건 무조건이야」를 하며 마쳤다. 끝난 진행을 한 이영미 전 108인회 회장의 사회도 워크숍을 탄탄하고 힘있게 이끌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108인회 전체 워크숍의 주제도 임원 워크숍과 같이 「청운동 시대 ‘희망’을 말하다」였다. 이기향 원장은 개원 이래 22년 동안 시대를 앞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세우고 핵심가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고, 여러 차례 힘든 과정 속에서도 부처님의 정법대로 실천해 왔기에 세찬 바람 속에서도 뿌리를 더욱 깊이 뻗을 수 있었다고 선배들의 활동을 치하하였다. 이어 개발원과 108인회는 23세의 청년의 모습으로 우뚝 섰다. 그러하기에 지금 이 시대에 밀착된 모습으로 성장 변화해야 하는데, 개발원이 지향하는 바를,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생활 수행 문화를 확산하고, 둘째, 소통과 화합으로 연대하는 조직 문화를 강화하고, 셋째, 불교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넷째, 타종단뿐만 아니라 타종교와 교류도 교류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미 명상 공간을 마련하였고, 소통을 위한 카페 108을 운영할 예정이고, 앞으로 역사적으로 맑은 기운이 넘치는 청운동 터에서 영적 리더들의 강력한 이끌에 힘입어 크게 성장할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 젊은 불자 유입의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소통하는 불교와 문화 콘텐츠로 풀어내는 부처님 이야기 등으로 새로운 불교의 얼굴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청운동 시대의 희망을 열고자 한다면,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회원들 모두의 마음속 깊이 각인될 때만 풀어낼 수 있다. 신심 투철한 전문성을 가진 우리 회원 모든 분들이 사회를 향해 회향하기 위해 모인 열린 공간에서 청운동 시대를 맞이하여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면서 함께 꿈꾸는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꿈: 청운동 시대의 희망’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환영사에서 청운동 우리 여성광장을 내 집처럼 애용하여 문턱이 닳도록 차수별 모임이나 친목, 공부 모

임, 각종 회의도 하고 수행 모임도 가지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광장은 모든 회원님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발원과 108인회가 성장하기 위하여 좀 더 탄탄한 수행력을 갖추고, 회원 중심의 교육 활동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국가와 외국에도 도움이 되는 역량을 갖춘 불교단체로 성장하고, 봉사활동의 측면에서는 우리 건물부터 정리 관리하는 데서 시작하여 지역 주민과 소외된 이웃, 외국인, 미래를 위한 인적 개발 지원과 질병 예방 교육에도 지평을 넓혀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도 여러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체 108인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진지한 토론과 발표를 통하여 집단지성을 모아 실천하는 것이 청운동 시대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번 특강에 모신 김홍근 교수님은 108인회와 개발원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신다. 이번 특강에서도 2023년 불교여성개발원이 청운동으로 옮기면서 일어나는 상서로운 조짐이 과거부터 이미 준비되어 왔고, 터전인 청운동 자리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마침 올해 개발된 AI 챗GPT가 세상을 놀라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불교여성개발원과 여성불자 108인회도 불교를 그와 같이 변화시키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여 워크숍을 하는 회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듬뿍 주셨다.

이와 함께 여성불자 108인회 워크숍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자료를 분석해보면(참석자 중 16인 제출) 만족도는 매우 높아 매우 만족 내지 만족이 87.5%였다. 그 이유로는 화합과 단합이 이루어지는 분위기였고, 서로 만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특강과 토론, 노래 교실 등 프로그램이 적합했고, 김홍근 교수님의 특강에서도 청운동의 희망을 확인하게 되어 힘이 되었다고 하였다. 반면, 참석자가 적은 점과 날짜와 장소의 선정에 아쉬움을 표한 소수 회원도 있었다.

여성불자 108인으로서 가장 원하는 일은 자신의 전문성으로 불교계에서 회향, 봉사였고, 불교여성개발원에서 해야 할 일 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개발원에 바라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회원의 자아실현의 장터 제공과 봉사단체로 봉사에 치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두 차례의 워크숍에서 토론한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표로 만들었다. 즉시 실행해야 할 것도 있고,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과 장기적으로 연구할 것도 있다. 이러한 의견제시와 토론은 개발원과 108인회원들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며,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다만, 이를 위하여 개발원과 108인회의 헌신과 열정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도 새겨봐야 할 일이다. 🌸

불교여성개발원 이사 명단



원장 **이기향**
1차108인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부원장 **남동현**
6차108인
전)명문고등학교 교장



부원장 **원유자**
4차108인
한국대학생불교총동문
회 상임고문



부원장 **윤정로**
9차108인
전)울산과학기술원
(UNIST)석좌교수



부원장 **이 란**
2차108인
전)여여회 회장



부원장 **이정호**
2차108인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
협회,수련감독치료사



부원장 **정대련**
6차108인
동덕여자대학교 아동
학과 교수



부원장 **피상순**
3차108인
우리사랑정신과의원
원장



이사 **강영자**
6차108인
조계사 의료팀장



이사 **김 진**
2차108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이사 **김수현**
2차108인
부산선양복지원이사
장,BTN부산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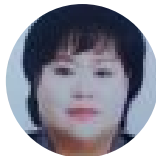
이사 **김숙애**
9차108인
전)인천 석정중학교
교장



이사 **김순철**
6차108인
전)라사라패션 원장



이사 **김옥숙**
10차108인
10차108인 차수장



이사 **김옥주**
7차108인
강원지원지원장,천매
갤러리대표



이사 **김인숙**
1차108인
재)아부다비생명공학
연구원이사장



이사 **노인자**
5차108인
종로우수협회 대표



이사 **손재현**
2차108인
동국대학교체육교육
과(무용)교수



이사 **이영미**
6차108인
(주)세미성대표이사



이사 **정영수**
4차108인
전)안면암운영위원장



이사 **정진희**
3차108인
동국대학교 미래융합
대학 강사



이사 **최혜경**
2차108인
정법신행회 회장



이사 **최희영**
7차108인
도산서원 선비문화수
련원 지도위원



이사 **황경자**
6차108인
위즈덤합창단 단장



이사 **황남채**
1차108인
판화가



이사 **황외숙**
4차108인
전)서울교사불자연합
회회장



감사 **형양자**
10차108인
나눔북카페 이사장



감사 **전영숙**
8차108인
연세대 중국연구원 연
구원

(사)지혜로운여성 이사 명단



이사장 **이기향**
1차108인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이사 **계미향**
8차108인
동국대 연구교수



이사 **김선옥**
6차108인
전)한국불교연구원
이사



이사 **김여주**
10차108인
성신여대명예교수



이사 **김영희**
9차108인
청명헌 대표



이사 **김외숙**
2차108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명예교수



이사 **김형인**
9차108인
전)한국외국어대 사
학과 교수



이사 **노숙령**
4차108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이사 **박종덕**
5차108인
Space 해인스튜디오
소장



이사 **배영숙**
10차108인
수서그린나츨라의원
원장



이사 **안기순**
8차108인
약사



이사 **양경운**
5차108인
화가



이사 **양현정**
9차108인
도봉방학가람어린이
집 원장



이사 **윤덕심**
9차108인
전)방배중,고등학교
교사



이사 **이명순**
2차108인
성균관대학교 의대
교수



이사 **이순재**
8차108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교사



이사 **이영주**
7차108인
이영주클락션 대표



이사 **이윤희**
10차108인
명상순례자요가원
원장



이사 **이인자**
2차108인
경기대 명예교수



이사 **임순덕**
5차108인
전)NGO 자비를나르
는수레꾼 재무



이사 **정은희**
6차108인
금거래소 대표



이사 **조미환**
10차108인
강릉 영동대학교 교수



이사 **조희금**
2차108인
대구대 명예교수



이사 **한경란**
9차108인
전)리더십과정 팀장



이사 **형난옥**
6차108인
크리에이티브콘텐
츠&출판 나눴 대표



감사 **형양자**
10차108인
나눴북카페 이사장



감사 **전영숙**
8차108인
연세대 중국연구원 연
구원

사무국 소식

○ 정기운영위원회

1월 9일, 2월 9일, 3월 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및 결산심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였다. 2023년 정기총회 날짜 및 청운동 개원식, 그리고 원장-이사장 이취임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3월 회의는 이기향 신임원장 주재하여 임원 및 108인회 워크숍 실시 및 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 우크라이나 한국 유학생 장학금 지급

1월 18일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이벨리나 체레프코 학생이 한국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운영위원회 위원 19명이 후원한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하였다. 전달식은 오후 1시 30분에 지혜실에서 김선옥원장이 증서를 전달하고 이정호 부원장, 조은수 감사가 참여하여 이벨리나 체레프코 학생을 격려하였다.



○ 부산 감로사 회주 혜충스님, 광성사 소남스님 친견

1월 26-27일 1박 2일로 김선옥 원장과 인도성지순례에 동참한 회원 6명은 부산 감로사에 계시는 혜충스님을 친견하고 신년 인사를 드렸다. 이 자리에는 서병수 부산시장도 동석하여 감로사의 역사와 혜충스님의 원

력을 찬탄하며 신년 떡국공양을 함께 하였다. 이어 혜충스님의 안내로 해운대 밤바다 나들이로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 광성사로 이동해 사시 기도에 동참하였다. 광성사 소남스님은 올해 인도남부 좌파사원에 방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이 성사되도록 애써주시고, 인도성지순례를 환희심나게 이끌어 주신 두분 스님께 감사인사를 올렸다.



○ 2023년 회계, 업무감사 실시

2월 1일 2022년 회계 및 사업에 대하여 오후 2시 김영숙 회계감사가 1.1-12.31일까지 개발원과 지혜로운 여성의 통장과 장부잔액을 대조하여 감사하였다. 오후 5시에 조은수 업무감사는 개발원과 지혜로운 여성의 본부 및 센터사업과 2023년도 계획에 대해 감사하였다.



○ 법성계 사경기도 회향 및 금강경 100일기도

2월 14일 오전 7시 김선옥, 이기향 두분 원장과 법성계 기도 동참한 회원 8명은 지리산 선림사를 참배하고 회향을 알렸다. 보우법사는 단독방을 통해 김선옥 원장의 인례로 개발원 회원들이 기도를 잘 이어가고 있음을 격려하고, 다음 기도는 금강경 독경과 사경을 권하였다. 특히 독립과 여성광장 건립을 완수한 김선옥 원장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이기향 원장 후보자에게도

사무국 소식

화합을 강조하며 잘 이끌어 주시라는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금강경 100일기도를 위해 독송집 100권을 배포하였다.



○ 정기이사회 개최

2월 16일 오전 11시 (사)지혜로운여성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안건 1로 (사)지혜로운여성 제 9대 이사장으로 이기향 신임 이사장(한성대학교 명예교수, 1차 108인)을 선출하였다. 이어 지혜, 개발원 이사들이 함께 점심공양을 함께 하며 신임 이사장을 환영하였다. 이어 오후 2시 불교여성개발원 정기이사회를 실시하여 제 12대 원장으로 이기향 1차 108인을 선출하였다. 이어 2022년 사업 및 결산 승인,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그리고 신임 이사 및 감사를 승인 의결하였다.



○ 사무실 이전

2월 20일 오전 9시에 2000년 창립부터 22년을 함께 해온 종로구 수송동에서 청운동으로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108인회 각 차수는 2월 17일부터 조를 짜서 물품 정리 및 포장을 돕고, 비품 리모델링을 도왔다. 또한 리모델링을 끝낸 청운동에 108인회 및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동참하여 지하에서부터 옥상, 그리고 복도까지 쓸고 닦으며 큰 힘을 보태주어 이사를 무사히 끝낼 수 있었다.



○ 정기총회 및 개원식 그리고 원장이 취임식

2월 25일 큰 일을 앞둔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오전 10시부터 임원 및 회원들이 모여 최혜경 건강밥상지킴센터장의 목탁 집전으로 금강경 1독 기도를 함께하며 청운동 여성광장 개원에 부처님 가피가 깃들도록 마음을 모았다. 기도 끝난 후 발원문을 함께 낭독하였다. 이어 11시 정기총회는 조정숙 사무국장이 성원보고를 통해 회비 납부한 회원 295명 중에 참석 52명과 위임 102명 합계 154명 과반 이상으로 성원성립을 보고 한

사무국 소식

후 안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점심공양은 최혜경 건강 밥상지킴센터장이 80여 명 회원에게 떡국 공양을 올려 잔치집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오후 2시 불교여성개발원 고문 혜충스님의 인례로 현 판식을 마친 후 2층 지혜실에 모여 법문을 듣고, 떡 컷팅식 그리고 원장 이취임식이 순조롭게 이어졌다.



○원장, 이사장 업무 인수인계

2월 28일 김선옥,이기향 두 원장, 이사장의 업무 인수인계가 1층 마하실에서 있었다.



○금강경 독송 및 사경 100일 기도 입재

3월 3일부터 불교여성개발원의 화합과 정진을 위한 금강경 독송, 사경 100일기도를 입재하여 매일 새벽 5시에 이기향 원장이 기도 시작을 알리면 동참자들도 함께 시작과 종료를 단체 토크방을 통해 알리고 있다. 현재 51명이 함께 하고 있다.



○우바이예찬 편집회의 및 향운사 참배

3월 9일 이기향 신임 원장과 첫 우바이예찬 편집회의를 하여 85호 기획회의 및 1년 동안의 편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3월 14일 이기향 원장과 인연이 있는 수유리 향운사(주지 지상스님)를 방문하여 '가고 싶은 절, 만나고 싶은 스님'을 취재하였다. 이날 인터뷰에는 이기향 원장, 형난옥 편집위원장, 이영희 편집위원, 조정숙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임원 워크숍

3월 18일 이기향 신임 원장 취임 후 개발원의 비전을 공유하고 임원들의 친교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사무국 직원 퇴사 및 입사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조문경, 황선미 직원이 1월 말일자로 퇴사하고 2월 1일 김혜령 총무팀장, 2월 20일 이숙연 연구교육팀장이 신임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산하기관 센터 소식

○여성불자108인회 회장 이·취임식(회장 남동현, 6차 108인)

1월 10일 제5회 여성불자108인의 날을 기념하고, 108인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그동안 7대 회장을 맡아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봉사한 양경운 회장께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장을 전달하고, 8대 회장으로 남동현 6차 108인을 선출하여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남동현 회장과 함께 108인회를 이끌어갈 각 차수장께 임명장을 전달하고 떡국공양을 나누며 2023년도 힘차게 정진하기를 발원하였다.



○여성불자108인회 임원회의(회장 남동현, 6차 108인)

1월 26일 줌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여성불자108인회 신임 차수장과 인사를 나눴고 올해부터 108인회 임원회의는 매주 첫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2월 2일 임원회의에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자원봉사 일정을 논의하고 3월 회의에서는 108인회 전체 워크숍 프로그램을 확정지었다.

○가족지원센터(센터장 한경란, 9차 108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부터 한부모 가족의 가장인 한부모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불교여성개발원 가족지원센터의 한부모들은 매월 정기 모임을 통해 건강한 심신을 위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다.



○건강밥상지킴센터(센터장 최혜경, 2차 108인)

3월 25일 여성광장 4층 108카페에서 최혜경 신임 센터장은「밥이 보약이다」주제로 강좌를 열어 제철음식



산하기관 센터 소식

과 함께 집에 있는 재료로 요리를 만들었다. 이번 강좌는 우바이예찬 봄호에 자세한 내용을 신기로 하였다.

○ 교정교화센터(센터장 윤덕심, 9차 108인)

1월 설날을 맞아 고봉중고등학생들에게 명절 특별식을 선물하였다. 한편 고봉중고는 현재 상반기에 코로나 환자가 늘어 정기 법회를 못 보고 간식만 후원하고 있다.



○ 명상리더십센터(센터장 김영희, 9차 108인)

2월 1일 명상리더십센터 김영희 신임 센터장은 집행부(백경임 고문과 김지영, 박원자 전 센터장) 회의를 통해 2022년도 사업 및 결산을 보고하고 2023년 사업계획에 대해 의논하였다. 불교여성개발원의 수행에 명상리더십센터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단장 노인자, 5차 108인)

2월 다문화가족 정기법회를 2월 12일 개최하였다. 이

주여성 가족과 함께 온 초등학생은 지혜실에서 자원봉사자와 한국어 학습을 하고 이주여성들과 봉사단원은 자비실에서 천수경을 읽고, 지도법



사 도영성님의 법문과 한선희 봉사자의 찬불가 음성공양으로 법회를 마쳤다. 수송동 개발원에서 마지막 법회를 기념하는 사진 촬영을 하고, 청운동 개발원까지 걸어가서 리모델링중인 건물을 둘러보고 3월 청운동 개발원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며 회향하였다.

3월 12일 청운동 개발원에서 다문화가족 법회를 열고 먼저 점심 공양금을 후원하는 김세역, 강영자 부부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이어 삼천사 동출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들었다.



○ 불교여성연구소(센터장 김진, 2차 108인)

2월부터 연구위원(계미향, 오기남, 김혜령)들은 줌회의를 통해 연구소 핵심사업인 불자를 위한 생활의례 정착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콘텐츠 개발과 출판물을 위한 예산 확보도 다방면으로 논의중이다.

산하기관 센터 소식

○ 생명존중운동본부(본부장 이순재, 8차 108인)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을 맞이하여 불교여성개발원은 등록기관으로서 강연자 상담사가 참석하였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교육 수료 후 상담활동 중인 상담사 22명은 각 지역에서 열심히 상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등록기관 기본교육, 심화교육은 매월 1회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



○ 위즈덤합창단(단장 황경자, 8차 108인)

2월 25일 여성광장 개원식에 멋진 무대복과 화음으로 행사를 빛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김옥경 단원의 지도로 라인댄스를 배우고 오후 3시에 정기연습을 한다. 찬불가를 배우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위즈덤합창단으로 연락하면 된다(010-6216-8647). 위즈덤합창단은 2013년 4월 9일 창단하여 10주년을 맞이한다.



○ 지혜아카데미 제5기 개강(팀장 정진희, 3차 108인)

제5기 지혜아카데미를 개강하여 단강 포함 20명 수강생이 신청하였다. 1강은 3월 17일 조은수 교수의 「원효스님 글의 논리적 구조」를 했고, 2강은 4월 21일 김형인 교수의 「미국역사」를 오후 2시에 지혜실에서 한다.



○ 미술심리상담(실장 이정호, 2차 108인)

3월 31일 자비실에서 10명의 수강생과 함께 인형만들기를 하였다. 만들고 싶은 인형 본을 뜨고, 직접 바느질을 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안길 기회가 된 시간이었다.



○ 날란다독서모임(반장 조명숙, 8차 108인)

3월 9일 온라인 첫 모임을 갖고 올해 날란다 독서모임 상반기 독서 도서로 『생명을 묻다』를 선정하고 4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주 한 사람씩 발표하기로 하였다. 작년 계미향 반장에 이어 올해는 조명숙 회원이 반장으로 독서모임을 이끌게 된다.



회원동정

○김영란(3차 108인)

3월 31일 불교여성개발원 날란다 독서모임을 위해 공동 번역에 참여한 『다키니 파워』 10권을 후원하였다.



○남동현(6차 108인)

3월 8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 “공평한 대한민국, 여성과 함께”에 불교여성개발원 대표로 참석하였다.



○전영숙(8차 108인)

1월 15일 잠실 불광사 불광법회장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정기법회 금주의 법에 법문하였다. “21세기 중화권 불교의 현황과 전망” 주제로 중화권 불교계의 현황, 사회를 선도하는 지식인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 참여, 기업을 경영하는 재가자 중심의 거사림회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는 내용으로 90분간 법문하였다.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원유자 부원장, 계미향 연구위원,



조정숙 국장이 참여하였다.

○정경연(1차 108인)

3월 10일 재단법인 한국섬유패션정책연구원(이하 섬정연) 이사회에 이사로써 단독 추대되어 만장일치로 제3대 이사에 취임하게 되어 취임식을 가졌다.



○정진원(7차 108인)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봉선사에서 주최하는 월인석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3월 수료식에 조명숙 회원과 함께 수료식을 마쳤다.



○피상순(3차 108인)

2022년 연말에 한국여성정신의학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형난옥(6차 108인)

크리에이티브콘텐츠 & 출판사인 나눙과 충남신문& 천안 인생극장은 천안 지역 발전을 위해 업무 협약을 하였다.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3.1.1~2023.3.31)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이 감사드립니다.

불교여성개발원 이사회비		양재화(7차)	1,000,000	서은숙(6차)	30,000	김연금	20,000	허영숙	30,000
김진	1,200,000	어순아(9차)	1,000,000	손영신(9차)	30,000	김연희	30,000	형난옥	30,000
김순철	200,000	엄희원(10차)	1,000,000	손인매(9차)	20,000	김명희	30,000	홍점례	15,000
남동현	3,000,000	오응옥(3차)	1,000,000	송종옥(9차)	30,000	김정희	30,000	황유진	30,000
민경란	200,000	우인순(8차)	1,000,000	송주희(9차)	30,000	김주연	20,000	불교여성광장건립 (CMS)	
원유자	200,000	윤정로(9차)	1,000,000	송혜진(8차)	30,000	김학엽	15,000	강인영	50,000
윤정로	3,000,000	이경자(5차)	1,000,000	신재영(6차)	30,000	김현숙	30,000	계미향	270,000
이란	3,000,000	이계경(4차)	1,000,000	안기순(8차)	570,000	나경윤	15,000	권은량	90,000
임소덕	1,200,000	이두영(10차)	1,000,000	안인자(9차)	30,000	도인희	30,000	김옥숙	324,000
정대련	3,000,000	이명숙(7차)	1,000,000	양경운(5차)	30,000	박말희	15,000	김형숙	90,000
황남재	100,000	이순이(3차)	1,000,000	양영미(10차)	30,000	박문숙	30,000	류인숙	90,000
최혜경	300,000	이연숙(1차)	1,000,000	오지연(4차)	30,000	박복순	15,000	박원자	450,000
황외숙	300,000	이원표(8차)	1,000,000	오현경(9차)	30,000	박영재	30,000	손미영	360,000
(사)지혜로운여성 이사회비		이윤희(10차)	1,000,000	유진희(6차)	30,000	박지선	30,000	손미원	150,000
김성연	1,200,000	이인옥(3차)	1,000,000	윤정선(6차)	30,000	박홍우	30,000	송옥순	90,000
노숙령	1,200,000	이인자(2차)	1,000,000	윤효영(8차)	30,000	박희상	30,000	신수영	30,000
이명순	300,000	이재식(8차)	1,000,000	이기향(1차)	90,000	배영철	60,000	안혜경	300,000
이영희	100,000	이주연(6차)	1,000,000	이수진(10차)	30,000	서해정	30,000	양현정	300,000
이재식	1,200,000	이주현(4차)	1,000,000	이영희(8차)	20,000	선문스님	30,000	유옥준	120,000
조미환	300,000	이태영(9차)	1,000,000	이은희(9차)	30,000	송만순	60,000	임주연	90,000
여성불자108인회 평생회비		이현아(10차)	1,000,000	이중용	30,000	신미옥	15,000	임지영	90,000
강미중(5차)	1,000,000	이현주(10차)	1,000,000	이지원(8차)	30,000	신용애	10,000	정주현	300,000
강설미(7차)	1,000,000	임현주(7차)	1,000,000	이현영(9차)	10,000	신은영(자우스님)	30,000	정진희	3,000,000
권지혜(7차)	1,000,000	강미숙(9차)	1,000,000	이혜숙(9차)	30,000	안미경	40,000	조재엽	120,000
김경량(10차)	1,000,000	전나미(7차)	1,000,000	임상연(9차)	30,000	안서자	30,000	조경숙	108,000
김귀순(7차)	1,000,000	전영자(3차)	1,000,000	임영희(8차)	30,000	안정옥	30,000	본각스님	50,000
김미연(10차)	1,000,000	정명자(8차)	1,000,000	임정애(6차)	30,000	연명순	30,000	불교여성광장건립 (온라인)	
김미원(9차)	1,000,000	정미림(8차)	1,000,000	전영숙(8차)	30,000	왕민영	30,000	고은자(10차)	1,080,000
김복순(2차)	1,000,000	정진원(7차)	1,000,000	정은희(6차)	30,000	원유자	30,000	권수형(4차)	360,000
김선옥(6차)	1,000,000	조명숙(8차)	1,000,000	정지원(7차)	30,000	유명숙	30,000	권승오(9차)	300,000
김숙자(3차)	1,000,000	조영우(7차)	1,000,000	정해정(9차)	30,000	윤용옥	15,000	권은량(회원)	270,000
김순남(10차)	1,000,000	조재란(10차)	1,000,000	조경숙(6차)	30,000	이강희	15,000	김동휘(이영주권선)	100,000
김승목(3차)	1,000,000	조희금(2차)	1,000,000	조은수(2차)	30,000	이미선	90,000	김숙애(9차)	3,240,000
김양식(1차)	1,000,000	최경분(9차)	1,000,000	조정숙(6차)	30,000	이송화	40,000	김순철	1,080,000
김영순(3차)	1,000,000	최나영(10차)	1,000,000	조현숙(10차)	30,000	이숙자	30,000	김애주고문	3,000,000
김옥숙(10차)	1,000,000	최영옥(9차)	1,000,000	주찬옥(6차)	30,000	이영재	30,000	김경란(3차)	1,080,000
김외숙(2차)	1,000,000	최은숙(3차)	1,000,000	최복란(8차)	30,000	이윤구	30,000	김영희(9차)	1,080,000
김용숙(7차)	1,000,000	최혜숙(4차)	1,000,000	최은희(9차 부산)	30,000	이윤희	30,000	김현지	1,080,000
김윤옥(7차)	1,000,000	추미실(3차)	1,000,000	최은희(9차 제주)	30,000	이재명(정원일)	40,000	김혜영	500,000
김은희(4차)	1,000,000	하봉자(10차)	1,000,000	최희영(7차)	30,000	이정애	30,000	대한불교꽃꽃이연합회	
김일명(7차)	1,000,000	홍원숙(8차)	1,000,000	한주영(10차)	30,000	이정호	30,000	민경란(9차)	1,080,000
김주현(8차)	1,000,000	홍정애(3차)	1,000,000	한재화(9차)	40,000	이종열	30,000	민은자(이영주권선)	300,000
김지영(5차)	1,000,000	조은경(10차)	1,000,000	한혜원(7차)	10,000	이진수(무관스님)	30,000	박순고문	700,000
김진여심(5차)	1,000,000	박기옥(10차)	1,000,000	함양자(10차)	300,000	이화선	30,000	박진현	1,000,000
김현지(7차)	1,000,000	이전희(10차)	1,000,000	홍경희(2차)	80,000	임정순	15,000	성기옥	108,000
남상민(1차)	1,000,000	여성불자108인회 회비 (CMS)		함남재(1차)	30,000	임주연	30,000	심미경(9차)	1,080,000
라영자(1차)	1,000,000	강명희(6차)	60,000	함명자(6차)	30,000	임태숙	10,000	안국선원 천양자	50,000,000
문명하(5차)	1,000,000	강옥란(7차)	30,000	황선화(5차)	30,000	장길수	30,000	윤덕심	1,080,000
박강자(6차)	1,000,000	강옥희(7차)	20,000	황수남(9차)	30,000	장영선	30,000	이연숙	1,080,000
박경자(5차)	1,000,000	강희경(10차)	30,000	황지석(10차)	30,000	장윤실	30,000	이영미	3,000,000
박근연(1차)	1,000,000	계미향(8차)	30,000	여성불자108인회 회비 (온라인)		전미옥	30,000	이영주(7차)	1,080,000
박명혜(2차)	1,000,000	고은자(10차)	30,000	박경임(6차)	100,000	정명모	30,000	이용희(최혜경권선)	900,000
박정애(8차)	1,000,000	김선연(9차)	20,000	윤혜경(10차)	100,000	정숙인	90,000	이윤희(10차)	540,000
박종균(6차)	1,000,000	김양희(6차)	30,000	고경효(10차)	100,000	정주현	30,000	이인자고문	600,000
박진채(9차)	1,000,000	김영미(6차)	30,000	김만옥(8차)	100,000	정희자	30,000	이정호(2차)	2,000,000
백경임(1차)	1,000,000	김영숙(6차)	30,000	김용숙(7차)	100,000	조귀자	30,000	이지원	500,000
사기순(4차)	1,000,000	김옥주(7차)	30,000	김혜령(9차)	100,000	조여경	30,000	이진범	108,000
서해정(1차)	1,000,000	김은주(10차)	20,000	강춘기(10차)	100,000	조우상	30,000	이천희	200,000
성민선(3차)	1,000,000	김정옥(7차)	20,000	양정희(9차)	100,000	진승연	30,000	정경연(1차)	10,000,000
손미영(7차)	1,000,000	남동현(6차)	30,000	성영란(10차)	100,000	진여스님(홍숙기)	30,000	정대련(6차)	280,000
손미원(9차)	1,000,000	남동화(3차)	30,000	홍소진(10차)	100,000	차원준	30,000	정은희(6차)	1,080,000
손인희(9차)	1,000,000	노희순(3차)	15,000	고외숙(7차)	100,000	최순진	30,000	정원진(정진희권선)	324,000
송현주(4차)	1,000,000	문보경(6차)	30,000	강희출	15,000	최혜경	300,000	조은수(2차)	2,000,000
신용현(9차)	1,000,000	박귀원(8차)	30,000	권은량	30,000	하양자	30,000	최혜경(2차)	1,080,000
안영(10차)	1,000,000	박정희(6차)	30,000	김보희	300,000	한승우	20,000	피상순	10,000,000
안애원(7차)	1,000,000	배순자(6차)	30,000	김보현	20,000	허난영	30,000	호국정법사	1,000,000
양숙자(5차)	1,000,000	배정선(9차)	30,000	김순자	15,000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3.1.1~2023.3.31)

호국홍보사	1,000,000	한림대봉사클럽	300,000	한선희	100,000	양정희(9차)	100,000	한미숙	20,000
홍난숙	1,000,000	한선희	20,000	한주영	100,000	양채화	50,000	한선희	100,000
홍원숙(8차)	1,080,000	황수경	270,000	황경자	50,000	어순아	100,000	한유리	30,000
호성스님	1,080,000	구반여행사	60,000	황수경	100,000	왕경리	10,000	한주영	50,000
황규잠(정진회권선)	90,000			황옥자	300,000	왕정임	100,000	한채화	100,000
황외숙(4차)	2,000,000			본각스님	1,000,000	원유자	50,000	황경자	100,000
		위즈덤 합창단 회비 및 후원		수경스님	500,000	유선화	100,000	황선화	100,000
불교여성광장건립		권승오	100,000	정덕스님	1,000,000	윤재희	20,000	황수경	100,000
(불교르네상스의꿈2)_약정 잔액		김미희	30,000	선재스님	1,000,000	윤정로	100,000	황외숙	100,000
강순주(원유자권선)	1,080,000	김선옥	100,000	해종스님	5,000,000	윤지현	20,000	황차석	50,000
게미향(8차)	810,000	김여주	90,000	윤지현.원지현.김예슬	130,000	응웬타핀	20,000		
권수형(4차)	360,000	김옥경	90,000			이기향	50,000		
권은랑(최혜경 권선)	450,000	신지율	180,000	터키지진구호		이란희	10,000	우크라이나(지혜강학금)	
김매주고문	5,000,000	어순아	180,000	강부자	1,000,000	이명숙7차	50,000	강미중	100,000
김옥숙(10차)	756,000	이희숙	30,000	강희출	50,000	이명숙2차	100,000	게미향	100,000
김용숙(7차)	1,080,000	정재선	180,000	고은자10차	50,000	이목자10차	100,000	김선옥	100,000
김인숙고문	85,000,000	정충원	60,000	김승오	50,000	이범순	30,000	김순애	100,000
김형숙(정진회 권선)	890,000	정희주	60,000	김도연	100,000	이순재	100,000	김진	50,000
류인숙(5차)	690,000	황경자	180,000	김만옥	50,000	이연숙	100,000	남동현	50,000
민정란(9차)	7,560,000			김미연	100,000	이연미	100,000	노인자	50,000
박순(1차)	9,000,000	고등동복지관 후원		김미영	20,000	이영미	100,000	박원자	50,000
박원자(5차)	1,850,000	김승주	40,000	김보원	50,000	이영이	100,000	양경윤	50,000
박진현(최혜경 손녀, 권선)	1,000,000	김연성	60,000	김복순	50,000	이영주	100,000	원유자	50,000
배영숙(10차)	1,080,000	김지영	40,000	김선연	30,000	이옥빈	10,000	윤득심	50,000
손미영(7차)	3,972,000	김혜미	10,000	김선옥	100,000	이유진	10,000	이순재	100,000
손미원(9차)	930,000	김희정	1,500,000	김수연	50,000	이인자	100,000	이영주	50,000
송옥순(정진회 권선)	990,000	박영숙	90,000	김수연	20,000	이인자	100,000	이정호	50,000
신수영(정진회 권선)	340,000	양현정	40,000	김숙애	100,000	이자옥	50,000	정대련	100,000
안혜경(이영미 권선)	800,000	윤정은	30,000	김매주	100,000	이정호	100,000	정진희	50,000
양경윤(5차)	9,800,000	전주옥	60,000	김여주(10차)	100,000	이종애(박승현)	100,000	조은수	100,000
양현정(9차)	900,000	정별	10,000	김연희	30,000	이주	100,000	황경자	50,000
연일밥550개 판매(최혜경 권선)	1,080,000	조현정	10,000	김영미	100,000	이주연	50,000	황외숙	50,000
유명숙(최혜경 권선)	80,000	한경숙	30,000	김예슬	20,000	이해선	100,000		
유옥준(정진회 권선)	1,080,000	한정미	300,000	김옥경	50,000	임부희	100,000		
이영미(6차)	7,000,000	홍윤진	30,000	김옥숙	50,000	임순덕	100,000		
이영주(7차)	7,560,000	황화성	150,000	김옥숙	100,000	임정자	100,000		
이영희(8차)	880,000	청운동 여성광장 개원식 후원		김외숙	200,000	임현주	100,000		
이인자고문	9,300,000	10차 108인	100,000	김용숙	100,000	전영숙	50,000		
이정호(2차)	4,780,000	4차 108인	50,000	김재영법사	100,000	전원환	1,000,000		
이철호(원유자 권선)	1,080,000	5차 108인	100,000	김진	100,000	전지영	30,000		
임주연(정진회 권선)	990,000	7차 108인	100,000	김현지7차	100,000	정경숙	200,000		
임지영(정진회 권선)	990,000	8차 108인	100,000	김형인	50,000	정경연	100,000		
정주현(최혜경 권선)	800,000	강미중	200,000	김혜령	50,000	정대련	100,000		
정진희(3차)	7,000,000	강원지원	350,000	남동현	100,000	정숙인	100,000		
조원진(정진회 권선)	540,000	고은자	30,000	남해경	100,000	정영숙	200,000		
조은수(2차)	8,000,000	권승오	50,000	노한선	100,000	정유진	30,000		
조정숙사무국장	756,000	김광숙	100,000	뉴엔디투하엔	20,000	정은희	100,000		
최정경(이영미 권선)	1,080,000	김미연	100,000	도안홍꾸엔	20,000	정이연	50,000		
형난숙(6차)	7,080,000	김선옥	500,000	류영화	20,000	정재선	50,000		
홍경희(2차)	1,080,000	김숙애	100,000	무량감로회	1,000,000	정진희	100,000		
황규잠(정진회 권선)	930,000	김순철	100,000	문보경	100,000	정진화꽃연구회사비만	1,000,000		
		김여주	100,000	민태영	50,000	정해숙	50,000		
		김옥숙	50,000	박경임	50,000	정해정	50,000		
		김외숙	300,000	박기옥	50,000	조구자	100,000		
		김인숙	1,000,000	박영재	100,000	조명숙	100,000		
		김진	100,000	박종덕	100,000	조문경	50,000		
		남동현	100,000	백경숙	50,000	조은경	100,000		
		노인자	100,000	백경임	100,000	조재란	100,000		
		무기명	50,000	백미현10차	50,000	조정숙	50,000		
		박광서	200,000	변희주	100,000	조희금	100,000		
		성명봉불교연대	100,000	사기순	50,000	진명순	50,000		
		어순아	100,000	서해경	200,000	차원준(최비안)	50,000		
		원유자	100,000	서해경	30,000	최경분9차	100,000		
		이명순	200,000	서희자	200,000	최복란	30,000		
		이순재	100,000	선림사	1,000,000	최성은	100,000		
		이영미	100,000	성만선	100,000	최해숙4차	100,000		
		이정호	100,000	성민선	200,000	최형준김주현	50,000		
		이현주	50,000	성영란	50,000	최희영	50,000		
		임현주	100,000	손인희	50,000	파상순	960,000		
		정경연	220,000	안기순	200,000	하수경	100,000		
		정영숙	200,000	안은옥	300,000	한미란	10,000		
		정미연	300,000						